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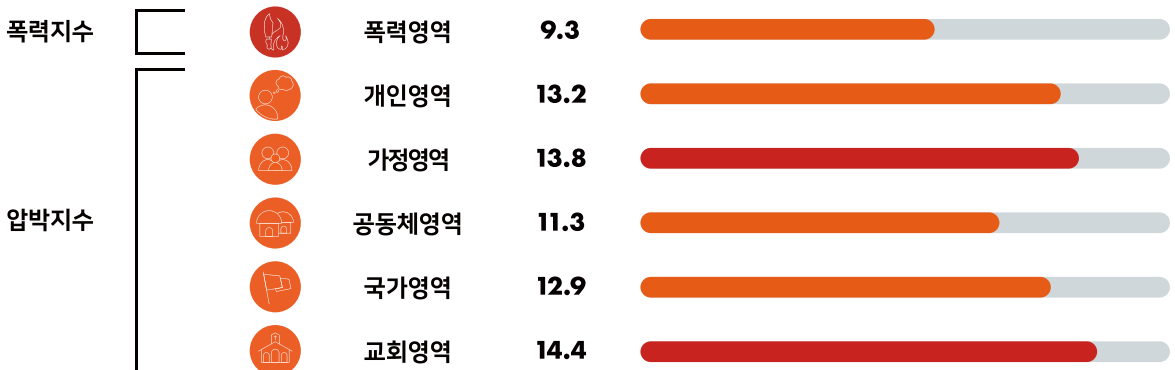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모로코 (MOROCCO)

기독교 박해지수
23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모로코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 층은 극심한 가족의 압박, 강제 고립, 가정에서의 추방, 신체적 폭력, 심지어 이맘들에 의한 미신적 처치까지 겪는다. 일부 판사들이 법정 사건에서 때때로 개종자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가족의 압박은 모로코 개종자들이 가족과 분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사회의 압박은 모로코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그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주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가 기독교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과 접촉할 수는 있지만, 이들 역시 활동 때문에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안 기관의 강화된 조사와 심문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보고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는 형법 제220조와 관련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모로코 기독교인과 외국인 기독교인 모두 체포될 위험에 처한다.

모로코 (MOROCCO)

국가 정보

지도자 : 무함마드 6세 국왕

인구 : 38,571,000명

기독교인 수 : 37,4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의회제 입헌군주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7,400	0.1
무슬림	38,439,000	99.7
불가지론/무신론	51,990	0.1
기타	43,100	0.1
	합계	100%

출처²

모로코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랍 세계, 유럽 사이의 역사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해안 지역은 여러 문명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고유한 관습과 언어를 지닌 강한 토착 아마지그(Amazigh, '베르베르')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슬람은 7세기 마그레브(Maghreb) 지역에 대한 아랍의 침공과 함께 들어왔지만, 베르베르 반란(740~743년) 이후 우마이야 칼리프국은 곧 축출되었다. 이후 여러 독립 왕조가 모로코를 통치해 왔으며, 현재의 알라위 왕조(Alawi dynasty)는 17세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군주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종교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현재 이슬람은 공식 국교이며, 수니파 말리키 법학파가 지배적이고 인구의 99%가 이를 따른다.

이전에는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일부였을 때 탕헤르,

라바트, 페스와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매우 두드러졌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모로코의 로마 지배 지역에 확고히 자리 잡았고, 아마지그 부족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화 정책으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작고 취약한 소수 집단만 남게 되었다. 1912년 모로코는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고, 이후 수천 명의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기독교인이 모로코에 정착했다. 1956년 모로코가 독립한 이후 대부분의 유럽인과 그들의 교회는 대체로 떠났다. 오늘날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수천 명과, 수천 명의 모로코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 이후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유지해 왔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모로코에 이르렀을 때, 정부는 헌법 개혁을 통해 아랍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을 휩쓴 정치적 격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베르베르계 주민들이 자신들이 정부에 의해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고 여기는 북부 리프(Rif)지역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여전히 강하다. 모로코는 정기적으로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지만, 정치 지형은 국왕이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실제로 제한되어 있다 (Freedom House 2025).

모로코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국가 엘리트층은 사회가 극단주의적 영향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로코식 이슬람"을 장려한다. 강한 아랍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청년 문화가 존재하며, 사회는 유럽에 거주하는 대규모 모로코인 인구의 영향도 받고 있다.

모로코의 기독교인들, 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온 개종자들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신중을 기한다. 이슬람이나 국왕의 종교적 권위를 비판하면 체포와 구금뿐 아니라 사회적 증오로 이어질 수 있다. 모로코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관련 자료를 게시할 때 가명을 사용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인터넷 접근성과 소셜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기독교 개종자들 다수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이제 온라인에서 교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당국은 아랍어 기독교 문헌을 압수하고, 특히 복음 전도를 위한 외국인 기독교인과의 협력을 금지하며,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공인된 예배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새로운 신앙 때문에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모로코 정부는 교회, 특히 개종자들이 관련된 활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모로코인들은 이슬람, 국왕, 국가에 충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국왕에게 불충하다고 비난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추방했다. 이러한 정부 조치의 한 가지 이유는 급진적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달래어 어떠한 소요도 방지하려 한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침해는 베르베르 인구가 주를 이루는 북동부 지역, 아틀라스산맥, 남동부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더 쉬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서구권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해외 기독교인들은 종종 감시를 받으며, 복음 전도가 의심될 경우 추방될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인 자유를 누린다. 일반적으로 오순절 교회에 속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다. 모로코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해외 출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다. 해외 출신 신자들을 위한 공인 교회는 주요 도시에만 존재한다. 모로코 토착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독교 개종자

무슬림 배경에서 온 기독교 개종자들은 공식 교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 교회에서 모인다. 도시 지역에서는 관용의 수준이 더 높지만, 개종자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가족과 사회의 압박을 받는다. 이들은 감시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복음을 전할 경우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모로코의 문화적 기대는 여성들을 가사 의무에 묶어 두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러하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박해에 가장 취약하며, 특히 가정 영역에서 그러하다. 이들은 자의적 이혼, 자녀 접근권 박탈, 가정 내 감금, 강제결혼의 위험에 처한다. 기독교 종교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농촌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복장과 의례를 따라야 한다. 강간과 성희롱은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금기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적 강압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 여성들도 모로코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 접근 차단
- 상속권·재산권 박탈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권리 거부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모로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이며,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온 사람으로 여겨진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척, 경제적 지원과 상속권 박탈, 아내에게 버림받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혼인 경우 무슬림과 결혼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적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심문을 받거나 구타당하거나 투옥될 수 있다. 개종 이후 반발의 강도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은 보통 가족의 주된 부양자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 압박이 핵심적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정부의 심문과 체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교회 지도자인 경우 그러하다. 매년 소수의 기독교 남성이 체포, 즉단기 구금과 심문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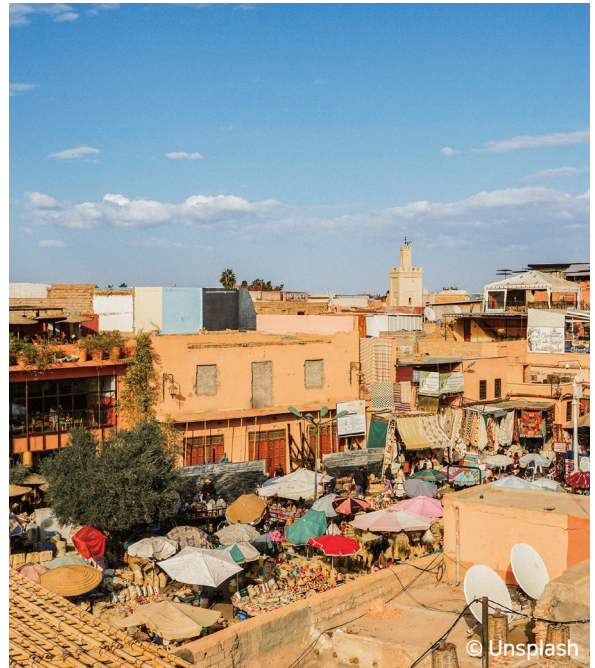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 폭력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3	75
2025	21	74
2024	24	71
2023	29	69
2022	27	69

전체 반올림 점수는 1점 상승했다. 압박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폭력 점수는 8.3점에서 9.3점으로 상승했다. 더 많은 수의 교회 모임이 모임을 중단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교회들 사이에서 그러했다. 보고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심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WWL 2026 보고 기간 내내 모로코 경찰에 의한 모로코 기독교인,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심문이 계속되었다. 기독교인이 기소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러한 소환은 위축 효과를 낳아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지역 사회 앞에서 낙인찍히게 만든다. 광범위한 감시는 많은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강요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정 교회가 경찰에 의해 모임을 중단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교회들은 이웃의 민원, 경찰 방문, 또는 집주인의 퇴거 조치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 장소를 옮기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모로코 기독교인들의 가정 교회에서도 발생했다.
- 여러 건의 강제결혼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러 개종자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보내졌다. 다른 모로코 기독교인들은 대개 가족의 압박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했으며, 심지어 자녀에 대한 접근권까지 잃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납치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2026	6	11	48	22
2025	12	7	75	17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현지 기독교인과 해외 출신 기독교인 모두가 가까운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할 경우 모로코 법에 따라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개종자가 기독교 상징물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때때로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많은 개종자들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정 영역

무슬림 여성과 기독교인 남성 간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모로코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또래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더 넓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모로코 기독교인 가정에는 동화되거나 이주하도록 만들기 위한 압박이 의도적으로 가해진다.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는 전통적인 모로코 정체성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앙으로 낙인찍히며,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모로코 보안 당국은 현지 기독교인과 해외 출신 기독교인의 활동을 감시한다.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표방하는 어떤 단체의 조직도 금지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일도 어렵다. 이러

한 압박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부모의 동의 없는 이슬람 교육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 영역

정치적으로 모로코 기독교인의 상황은 어렵다. 헌법이 이슬람을 국교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기독교 신념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나 모로코 개종자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단체들은 보안 기구로부터 의심의 시선을 받는다. 다만 일부 단체들은 정부와 연계된 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의 우려를 공유하도록 초청받은 바 있다. 기독교 복음 전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이들은 위의 개인 영역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로 고발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의 위험에 처한다.

교회 영역

기독교 활동은 종종 개종 권유 활동으로 간주되어, 공동체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임시 교회들은 여러 도시에 존재하며, 이주 때문이든 이웃 간 긴장이나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이전을 강요받기 때문이든 회중이 이동함에 따라 장소를 옮긴다. 해외 출신 기독교인 교회들은 모로코 국민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감시를 받는다. 모로코 기독교인들은 자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성경을 개종 권유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전시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로코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모로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척과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결혼을 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도록 강요받는다(ICCPR 제23조 3항 및 CEDAW 제16조)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거나 개종 권유 활동에 참여할 경우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 고용에서 제한을 받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ICCPR 제25조 및 제26조, ICESCR 제6조)

모로코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유대교는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소수 종교이며, 유대인들은 가족 문제를 다루는 자체 종교 법원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 종교이지만, 사실상 수니파 말리키 이슬람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아파 무슬림, 아마디야 무슬림, 바하이교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의 제한에 직면한다. 무신론자와 무신론은 사회와 정부 양쪽에 의해 억압된다. 알려진 무신론자들과 이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시민들 여러 명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오픈도어의 모로코 사역

현지 동역자 및 교회와 협력하여, 오픈도어는 다음 활동을 통해 북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 리더십: 지도자 수련회, 리더십 훈련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 제자훈련: 대면 방문을 통한 격려, 제자훈련, 신학 관련 활동 지원, 박해 대비 훈련을 제공하고,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배포한다
- 사역: 여성들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 훈련,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법률 지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와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지원 모임, 가족 콘퍼런스, 결혼 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 생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직업 훈련, 의료 지원 및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 모로코 신자들을 위한 기도 지원을 일으킨다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